

# 길을 묻는 이에게



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. 불  
 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  
 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 
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  
 십시오. 조계종 한미음선원의 대행  
 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.  
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 
 드립니다. <글책임: 편집자>

●보발곳: 우 110-170  
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-33  
 현대불교신문사  
 '길을 묻는 이에게' 담당자 앞  
 ●FAX: (02)737-0697/8  
 ●PC통신: 인터넷부디@ia  
 http://www.buddhapia.com/mem/ha  
 nmaum

## 법공양 페이지

# 처처마다 부처고 처처마다 도량

여러분께서 하늘과 땅이 돌이 아닌  
 도리를 공부하시는데 때로는 너  
 무 힘들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  
 시라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사실은 힘  
 드는게 하나도 없습니다. 생활이 그대로  
 부처님 법이지 우리들의 법이기 때문입  
 니다. 항상 말씀드리지만 생활을 빼놓고  
 무슨 부처님 법이 있었습니까? 여러분이  
 계시지 않는다면 종교라는 것도 없고, 법  
 당이라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. 그리고 부  
 처님의 형상도 없을 것입니다.

니가, 그냥 어떻게 지나가는 게 마음인  
 줄 알지 마시고 똑바로 진실하게 알아야  
 합니다.

왜냐하면 여러분이 살아나가기엔 큰  
 것, 작은 것 할 것 없고 고가 다가오는  
 데,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주어  
 지기 때문입니다. 우리는 눈·코·귀 달  
 리고, 육근·육진·육식이 충만한 몸을  
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분수를 모르고  
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가정을 등한시하  
 고, 자식이나 남편 또는 부인이나 자식을  
 돌보지 않으며, 화가 나면 아무렇게나 생  
 각하고 아무렇게나 욕해 버리고 아무렇  
 게나 야단쳐 버립니다.

첫째는 내가 마음을 나쁘게 먹고 말을  
 아무렇게나 한다면 입력이 된다는 것을  
 꼭 아셔서 조심해야 하며 입력이 되면  
 그대로 진행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  
 니다. 빠르게 나오고 더디 나오고 이것뿐  
 이지 흘러버림없이 그대로 입력이 돼서  
 나온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생각 하나 말  
 한마디 행동 하나를 잘 하셔야 합니다.

두번째는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정진  
 한답시고 철야정진하고 기도간다고 하면  
 서 가정을 등한시 하게 되니, 밥을 못 먹  
 어서 배고픈게 아니라 외로움에 때로는  
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가서 간식을 하  
 게 됩니다. 남편들은 나가서 간식을 하게  
 되고 자식들은 나가서 방황하다 보면 문  
 제의 청소년들이 되는 겁니다.

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, 우  
 리 스님네들은 여러분의 가정과 이 도량  
 이 돌이 아니라고 합니다. 돌이 아니기에  
 아픔도 돌이 아니고, 가정이 파탄되는 것  
 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 
 내가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 
 있습니다. '안방에 들어가면 안방이 법당  
 이요, 변소에 가면 변소가 법당이다'라  
 고, 내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법당이  
 되는 것이죠. 내가 없다면 모든게 무효입  
 니다. 그러기에 마음이 산란하고 어려운  
 문제가 있어도 거기다 되돌려 놓고 지켜  
 보는 사람으로서 축하하는 겁니다.

절에 와서도 불일이 끝났으면 빨리 다  
 녀가도 되는 것을 그냥 밤에도 정진한답  
 시고 집에 돌아가지 않아요. 그 가정이  
 뭐가 됩니까? 자식과 남편을 배고르게  
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, 그래서  
 그전부터 내가 철야정진을 시키지 않는  
 원인이 거기에도 있습니다. 자기 가는 곳  
 마다 부처가 계신데 어찌 밤에 여기서  
 정진을 한다고 해서 부처님이 자기를 돌  
 보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는다고 해서



그림 · 최추현

## 꿈 없으면 集·滅·道도 붙을자리 없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에 24시간 피로 다 없어져

안 들보겠습니까? 처처마다 부처고, 처처  
 마다 도량이고, 처처마다 자기가 그대로  
 법인데.

지금 종교로 인해서 가정파탄을 일  
 으키는 종교가 여러 군데 있습니  
 다. 그전부터도 그것을 많이 생  
 각해 왔습니다. 절에 기도 들어간다. 기  
 독교인들이나 가톨릭 신자들도 기도 들  
 어간다. 산기도 간다 하면서 밤낮을 가리  
 지 않고 다니며, 그렇게 자기의 진실을  
 찾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지팡이를 세우  
 지 못하고 돌아다니면서 헛된 시간을 보  
 내면서 남편과 자식들을 등한시해서 가  
 정이 엉망이 되어 가족들이 집에 마음을  
 붙일 수 없게 된다면, 기도를 아무리 백  
 번, 천번 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  
 니다.

안팎이 화목하고 즐거우며 아무 어려  
 움이 없이 한가정이 유지되어 나가는 그  
 런 길이, 여러분의 마음이 달려 있고 행  
 동에 달려 있고 말에 달려 있습니다. 피  
 치못할 사정이 있어서 나간다면 하더라도,

식탁 위나 냉장고 문에다가 '애들아,  
 피치못할 일이 있어서 나가니 이렇게 이  
 려게 해라. 널 사랑해 하고 크게 써서 불  
 여 놓고 나간다면, 그게 된 줄 아십니까?  
 그게 바로 마음의 에너지, 즉 광력의 힘  
 이 거기까지 미쳐서 그것을 쳐다보는 순  
 간에 바로 즐거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.  
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게 되죠. 남편이  
 고, 자식이고, 부인이고 모두가 말입니  
 다.

부인네들만 그렇게 하라는게 아닙니다.  
 말 한 마디에 천냥 빛을 갚는다고 했듯  
 이, 아무리 하루 24시간이 고달퍼도 따듯  
 한 말 한 마디를 하게 되면 24시간의 피  
 로가 다 없어지는 겁니다. 그리고 힘이  
 솟아 오릅니다. 애들이 이탈되는 것도 부  
 모의 책임이 99%라고 볼 수 있습니다.  
 처음부터 그렇게 할 양으로 나온 애들입  
 니까? 처음부터 그렇게 할 양으로 남편  
 들이 그렇게 되고 부인들이 그렇게 되는  
 것이 아닙니다. 조그마한 일에도 참지 못  
 하고 불끈불끈 내뿜고, 있는 정 없는 정

다 떨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. 보고 배우  
 는 게 뭐겠습니까?

불교라는 것이 절에 나와서 기도나 하  
 고 정성이나 들이고 이러한 종교가 아닙  
 니다. 종교라는 것은 우주천체에 인간들  
 이 생각하고, 행동하고, 말하고, 이 세상  
 에서 살고 돌아가는 이 자체가 종교입니  
 다. 불교이고요.

얼마전부터 신도들이 여기서 철야정진  
 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, 내가 굳이  
 말할 필요는 없었지만 말려야 되겠습니  
 다. 한 발짝 떼어놓고 가는 것도 정진이  
 요, 오는 것도 정진이고, 앉았는 것도 정  
 진이요, 누운 것도 정진이고, 서는 것도  
 정진이고 일하는 것도 정진인데 어떻게  
 해서 그렇게들 고정되게 생각들을 하십  
 니까?

항상 여러분한테, 길을 가다 넘어지면  
 그 땅을 짚고 일어난다는 말을 했지요.  
 그랬는데 허공을 허우적거리며 일어나려  
 고 한다면, 그것은 잘못되어도 이만저만  
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. 여기 앉아 있을  
 시간이 있다면, 그 시간에 남편과 자식들

을 돌보면서 가정을 행복하고 웃음넘치  
 는 식구들의 안식처로 이끌어가는 그  
 런 태도가 그대로 정진입니다. 그것을 누  
 가 하는 겁니까? 자기가 하는 거지요. 자  
 기 하나로 인해서 일체 만법이 벌어지고  
 일체 만법이 작용되고 일체 만법이 들고  
 나는 겁니다. 빛보다 더 빠르다고, 심력  
 은 그렇게 빠르고 힘이 있다고 항상 말  
 을 했지요. 그랬는데 몇 시간 동안은 여  
 기서 정진한답시고 즐기고 자고 온통 그저  
 말장난으로 말하는데만 전념을 다 하고  
 이렇게 해서 무슨 이득이 있었습니까?

진실한 마음으로써 모두 하나하나, 어  
 떠한 일에 화가 나고 어떠한 잘못이 있  
 고 하늘이 무너지고 깨지고 하는 일이  
 있다 할지라도 거기다 맡겨놓고, 부드러  
 운 말과 부드러운 행동, 부드러운 뜻을  
 가지고 모든 것은 한 군데에서 놓고 드  
 니까? 나는 그런 데에 신경 쓸 필요가  
 없다. 오직 상대 심부름만 열심히 잘 하면  
 된다' 하는 믿음을 진실하게 가지고 그  
 령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?

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... 보십  
 시오, 잊고지라도 얘기했지만 만물만생이  
 여러분의 차원으로 능력대로 가지고 살  
 다가 나중에는 몸까지도 다 놓고 가거라  
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허공까지도 말  
 입니다. 안그럼니까. 어떠한 일이 벌어진  
 다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  
 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만이 그냥 한  
 찰나에 돌아옵니다. 지금 급방 이 자리  
 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 
 말아야 합니다.

여러분이 지구를 붙들고 있을 수 있겠  
 습니까? 여러분이 지나 깨나 움직이는  
 것이 그냥 있을 것이 아닙니다. 알고 보  
 면 이것도 쉴 사이 없이 돌아가고 있는  
 겁니다. 어느 것 하나 그냥 있는게 없습  
 니다. 그런데 네 것 내 것 하면서 마음으  
 로 붙잡고 요거를 해야 옳을까, 안 해야  
 옳을까 하는 분별심을 가지고 붙들고 돌  
 아가니까, 그게 업이 되는 거죠. 어떤 경  
 우에는 다가오는 대로 업을 지니고, 그  
 운회상을 오히려 입력시키는 겁니다. 애  
 착을 가지고 붙들고 놓아주니까요.

너지가 허공만한 큰 것이 있다  
 하면 그 에너지 덩어리는 여러분  
 이 악으로 생각하면 악으로 쓰여  
 지고, 선으로 생각한다면 선으로 쓰여지  
 게 됩니다. 그러나 악이고 선이고 한 군  
 데에서 나오니까. 한 에너지 덩어리에서  
 나오니까. 그런데 악이다, 선이다, 악연  
 으로 두 마디를 하되, 천차만별의 악과  
 선은 가지가지로 다릅니다. 마음으로 악  
 을 짓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, 마음으로  
 선을 짓기도 하고, 행동으로 선을 짓는가  
 하면 행동으로 악을 짓고 말로 악을 짓  
 는가 하면 말로 선을 짓는 사람들이 천  
 차만별로 많습니다. '고'가 고가 아니라  
 한 마디로 말해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차  
 원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것이 나한테  
 다가오느냐, 그러니 고가 아니라 바로  
 나를 이끌어주는 재료라고 생각을 한다면  
 어느 것 하나도 '고'가 될 게 없습니  
 다.

'고' 하나만 떨어진다. '집착'도 떨  
 어지고 '결'도 떨어지고 '도'도 떨어진  
 다 이 소립이다. 그래서 고·집·멸·도  
 이 사제법이 '고' 하나만 없다 한다면  
 나머지 셋도 붙을 자리가 없습니다. 어떤  
 분들은 망상이 나온다느니 뭐니 하는데  
 그런 게 어디서 나오니까!

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, 팔죽 술에서  
 부글부글 팔죽이 끓어 팔죽 방울이 나오  
 듯 한 몸통이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. 다  
 큰데서 나오는게 하나도 없어, 제 자리에  
 다 놓으라는 데도 왜 그렇게 못 놓습니  
 까? 그 팔죽 방울 나오는 대로 제자리에  
 다 놓는다면 팔죽은 익어서 방울이 다  
 시는 안 나오니까. 이 팔죽 방울이 나온  
 다고 붙을 물렸다 붙이고, 물렸다 붙어  
 보십시오, 팔죽이 익나? 그 자리에서 나

16면으로 계속

법공양페이지는 동철을 원하는 종단·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 
 되어 각기 재량하여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

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.  
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

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 
 의뢰할 수 있습니다.

### 생활 속의 불교

## 글과 백지를 함께 볼 줄 알아야 한다.

부처님께서는 "강을 건넌다면 뱀목을  
 버려라"고 하셨다. 이 세상에는 강을 건  
 너신 분들의 뱀목, 즉 가르침이 많이 남  
 아 있다. 그렇지만 그 뱀목들은 강 이쪽  
 의 것이 아니라 강 저쪽의 것이다. 손짓  
 을 해서 부른다고 건너편 뱀목이 내 앞  
 으로 오지는 않는다. 그러므로 우리는  
 각자의 뱀목을 스스로 만들어 건너야  
 한다. 나의 뱀목이란 무엇인가. 내 참 마  
 음이 나의 뱀목이다. 모든 것을 나의 근  
 본에 맡기고 가는 것이 나의 뱀목을  
 타고 강을 건너는 것이다.

고 열매 맺는 도리도 뿌리에 있다. 일심  
 으로 뿌리에 물을 주어야 한다.

금강경을 달달 외었다 해도 무위법의  
 뜻을 모르면 글자만 보고 따른 것이지  
 부처님의 참 뜻을 따른 게 아니다. 불교  
 는 행이다. 경·율·론 삼장이 모두 행  
 을 위한 실명인 것이다.

팔만 대장경을 모두 다 배우려면 재능  
 있는 사람도 20년이나 30년쯤 걸릴 것이  
 다. 그러나 인생은 짧다. 고로 곧바로 마  
 음 닦아라 하는 것이다.

주장자가 서서 자유로움을 느끼게 되  
 었을 때는 경전을 보되 반야심경, 금강  
 경, 법화경, 화엄경 등을 보아라. 내 마  
 음을 바로 밝혀 역력하게 나를 보았다  
 면 옛 성현들이 말해 놓은 가르침의 방  
 편을 참고해도 된다. 경을 보되 보지  
 않고, 경을 보지 않되 보라고 하는 것은  
 그런 의미이다. 내면 세계의 참자기를  
 알고 보아야 경전을 보더라도 글과 백  
 지를 둘 아니게 거머쥐고 볼 수 있다.

사람들이 울바로 안다면 과거에 선조  
 들이 그렇게 많은 방편과 설법을 하지  
 도 않았을 것이고, 부처라는 이름조차도  
 없었을 것이다. 그러나 바로 알지 못하

경을 보되 그 경에서 참 뜻을 놓치는  
 사람은 마치 창 밖의 꽃을 보고 유리에  
 머리를 부딪치다 죽는 벌과 같다.

말에는 한계가 있다. 글에도 한계가  
 있다. 우선 바로 알지 못하기 쉽고, 실사  
 바로 안다고 해도 사물의 이치는 너무  
 세세하므로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  
 다. 그러므로 말을 들되 마음으로 들어  
 야만 한다. 비유하자면 경을 읽는다는  
 것은 나무의 잎새를 세는 것과 같고 경  
 배한다고 함은 나뭇가지를 만지는 것과  
 같다. 부처님께서는 잎새와 가지를 말할  
 하심으로써 부처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  
 주셨다. 고로 뿌리에 물을 주어야 한다.  
 뿌리가 아니라면 나무는 죽는다. 꽃 피



니가 설법도 하고 염불도 있어야 하고  
 촛불도 밝혀야 했다. 현재도 그러한 방  
 편을 다 따르는 게 예의로 되어 있  
 지만 그 뜻을 바로 알아야 한다. 왜냐하  
 면 비단이 개발되어 진작에 유통이 되  
 고 있는데 무명짜는 방법을 고집하는  
 격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. 요는  
 모든 사람들에게 성불의 길을 가르쳐  
 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덧붙여 짐이 되  
 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.

로켓트 타고 날오는 세상에 차도 없  
 어서 걸어가던 그때의 그 걸어간 얘기를  
 계속해야 할 것인가.

팔만 대장경에 문자로 기록되어 있어  
 서 진리가 아니다. 병풍 둘러치듯 지금  
 세상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게 팔만  
 대장경의 근본이자 진리인 것이다. 그러  
 므로 돌아가는 실상 속에서 죽음이 되  
 어야 하고 죽음이 되어야만 죽여라 할  
 수 있다. 그러기에 말 한마디 인도하기  
 가 쉽지 않다. 스스로 실상 속에서 터득  
 을 해야 자신이 들어가 본 곳에 남도  
 끌고 들어갈 수 있듯이 피안의 길을 인  
 도할 수 있는 것이다. 만약 자신이 물의  
 길이를 알지 못했을 때는 고작해야 시  
 능만 내는 길잡이가 될뿐이다.

경전이란 이 세계를 말해 놓은 것이  
 다. 그런데 경전이 나타나자 사람들은  
 경전을 보느라고 실상을 보지 않게 되  
 었다. 그래서 예전의 선사 중에는 수화  
 들에게 처음에는 오히려 경전을 보지  
 못하게 하신 분도 있었다. 경 속에 빠져  
 헤어나지 못한다면 경전 별베루에 될  
 게 없다.

역대 부처님들이 방편으로서 수많은  
 말의 덩을 놓았지만 그렇게 가르치고자  
 한 뜻을 가버어 볼 수는 없다. 흔히들  
 곁길에 치우쳐서 '본래 공인데 있  
 기는 뭐가 있으며 불을 데가 어디 있  
 는' 하지만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는  
 없는 것이다. 참으로 그것을 느낀 사람  
 이라면 무엇이든 서슴없이 그렇게 할 수 있  
 지, 느끼지 못한 사람이 흥내나 낸다면 그  
 업은 수억겁을 거저도 벗기 어렵다. 그  
 러기에 나로부터 상구보리 하화중생 해  
 야 한다. 내 몸 속에 있는 그 의식, 마음  
 들을 한마음으로 뭉쳐서 요리한다면 그  
 때에 바깥으로 남을 유익하게 조절할  
 수 있는 것이다.

법찬: 한 마음